

#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## 1. 기본정보

이름	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랑가라 컬리지	기간	3주

## 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.</p> <p>랑가라 대학은 밴쿠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, 밴쿠버 다운타운과는 대중교통으로 약 20분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. 학교 규모는 좀 작은 편이며 다양한 국적의 많은 교환학생들과 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. 미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고등학교 같은 느낌이고 편의시설도 스타벅스, 팀홀튼, 서브웨이 외에 교내 음식점과 자판기가 갖춰져 있습니다.</p>
수업	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.</p> <p>수업은 같이 단기어학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순천향대학교 학생 15명끼리 수업을 들었으며, 수업방법은 랑가라 컬리지에서 준비한 수업자료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. 총 3주차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교통, 여행, 캐나다 문화, 글로벌문화, 프레젠테이션 기술, 토론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로 파트너 혹은 그룹끼리 대화를 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.</p> <p>2017학년도 여름 단기어학연수와 달리 수업을 우리 학생들끼리만 들어서 랑가라 학생들과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고, 아무래도 우리끼리 수업을 듣다 보니 한국어로 대화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</p> <p>Mariette 선생님은 굉장히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해주셨고, 과제는 주로 저널쓰기와 홈스테이 가족들 인터뷰, 프레젠테이션 준비, 박물관이나 아쿠아리움 방문 후 프린트물 과제 등 입니다. 대부분 저널 쓰는 것이 과제였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수업도 있었으며, 우리끼리 주제를 정해서 팀별로 토론하는 수업도 있었습니다.</p>

Activity	<p>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. 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</p> <p>학교에서 준비한 Activity는 따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. 밴쿠버 박물관, 아쿠아리움, Granville Island는 딱히 준비할 것이 없고, 겨울이다 보니 컬링과 스노우슈잉과 같은 겨울활동이 있는데 이때 방한용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. 장갑은 꼭 필요하고 스노우슈잉은 눈길을 걷는 활동이라 일반 운동화는 눈에 젖기 때문에 방수용품(8달러 정도)을 빌리고 싶지 않으면 방수되는 부츠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.</p>
----------	---

### 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겨울의 밴쿠버는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거의 매일 비가 옵니다. 때문에 우산은 꼭 챙겨가야 하고 기온은 한국의 겨울보다 따뜻합니다.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밴쿠버 다운타운에 홈리스들이 있는 거 빼고 학교주변과 집주변은 안전하고 홈리스들이 다가와도 무시하고 갈 길 가면 됩니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 ) 홈스테이( O ) 외부 숙소( ) 기타( ) 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홈스테이는 보통 학교에서 버스타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배정이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걸어서 20분정도 걸리는 집에 배정이 돼서 매일 걸어서 등교했습니다.</p> <p>밴쿠버는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족들이 아시아인일 수도 있고, 배정된 홈스테이 집에 다른 나라 학생과 같이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집마다 생활하는 규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캐나다 가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, 사전에 홈스테이 가족들과 이메일로 연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홈스테이 가족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( ) 홈스테이 ( O ) 외부식당 ( O ) 기타( )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

	<p>아침은 집에서 시리얼 챙겨먹었고, 점심은 집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전날 저녁 음식을 런치박스로 챙겨갔습니다. 점심이 부실할 경우 학교에서도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녁은 보통 다운타운에 나가서 먹거나 홈스테이 집에서 먹었으며, 다운타운에는 한식 식당은 물론, 일식, 중식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 가격은 보통 9-15달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</p> <p>매운 음식이 생각나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이나 컵라면, 볶음고추장을 챙겨갈 것을 추천합니다!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</p> <p>저는 20분 정도 걸어서 통학했으며,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걷어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. 대부분 학생들은 버스나 skytrain을 이용해서 등교를 하며, 밴쿠버는 zone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놀러가기 전 사전에 숙지하여 추가요금에 대비하면 됩니다.</p> <p>교통카드는 한 달동안 버스와 skytrain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고, 2 zone을 가게 될 경우에만 표를 따로 구입하면 됩니다.</p>

#### 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 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1,372,900원	출국 전 사전 납부
여행자보험	33,000원	출국 전 사전 납부
유심	50,000원	한국에서 준비
식비, 쇼핑, 입장료	600,000원	\$700 환전
합계	2,055,900원	

#### 5. 출국 전 준비사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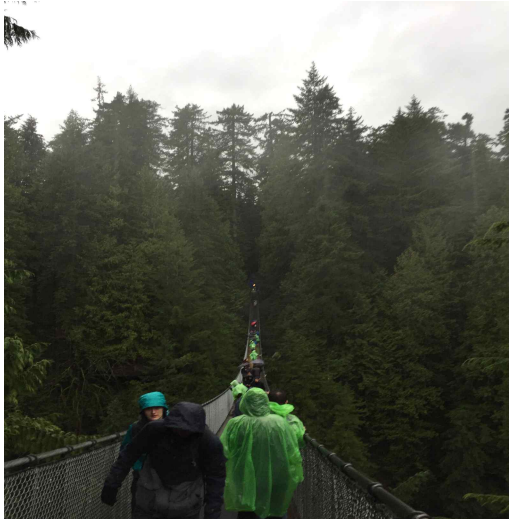

<p>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.</p> <p>홈스테이 집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며, 현지에서 유심을 구매할 수 있지만 캐나다공항에서 구매할 시간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</p> <p>동전지갑은 꼭 챙겨가는 것이 좋고,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우산과 방수되는 가벼운 옷(패딩보다 가벼운 옷)이 좋습니다. 저도 패딩보다는 조끼패딩을 더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. 불닭볶음면과 볶음고추장 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!</p>
--

## 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3주 동안 영어실력이 향상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캐나다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. 또한 숙소 생활이 기숙사가 아닌 홈스테이여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홈스테이 가족들은 대부분 다 친절하고 잘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싶다는 동기 부여가 되었고 학교 수업이 조금 지루한 것 빼면 굉장히 좋았습니다.

## 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<p>컬링</p>	<p>잉글리시 베이</p>
	
<p>캐필라노</p>	<p>밴쿠버 뮤지엄 앞 공원</p>



Granville Island 퍼블릭 마켓



빅토리아